



김래용 | 협성대

1. 서론

미쉬파트는 구약성서에 422번 나타나며,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었다. 「개역개정」은 미쉬파트를 공도, 정의, 율례, 법규, 판결, 규례, 법도, 재판, 법, 사연, 송사, 관습, 제도, 식양, 풍속, 심문, 직무 등 다양한 의미로 번역하며, 영어성경은 미쉬파트를 justice, law, just, judgment, right, cause, regulations, ordinances, punishment, sentence 등 다양한 의미로 번역한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가진 미쉬파트는 오경에 84번, 역사서에 76번, 예언서에 145번, 나머지 책들에 117번 나타난

1) 이 논문은 제90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소예언서에 나타난 미쉬파트 연구: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를 중심으로”의 일부를 ‘하박국서’를 중심으로 보완 정리한 것이다.

다.²⁾

이렇게 많은 미쉬파트 중에 우리는 ‘정의’(미쉬파트)하면 아모스서의 “오직 정의(צדקה)를 물 같이, 공의(קצת)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이다.”(암 5:24)라는 말씀을 떠올린다. 그러면서 아모스가 다른 예언자들에 비해 정의를 더 강조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아모스가 정의를 강조한 것은 분명하다.³⁾ 그러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떠한가? 다른 예언자들은 아모스만큼 정의를 강조하지 아니했는가? 실제로 아모스 이상으로 많은 예언자들이 정의(미쉬파트)를 강조했다. 미쉬파트는 이사야서에 42번, 예레미야서에 32번, 에스겔서에 43번 나타난다. 그리고 12권의 소예언서 중 7권에 미쉬파트가 나타나는데 호세아서에 6번, 아모스서에 4번, 미가서에 5번, 하박국서에 4번, 스바냐서에 4번, 스가랴서에 2번, 말라기서에 3번 나타난다.⁴⁾

그런데 이처럼 미쉬파트를 강조하는 다양한 예언서들 중에서 특히 하박국은 미쉬파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단어 미쉬파트를 가지고 그의 메시지를 전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쉬파트라는 단어가 하박국서의 뼈대를 형성하는 하박국의 탄원과 그 탄원에 대한 야웨의 답변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며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미쉬파트가 하박국의 탄원과 야웨의 답변 안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하박국서 전체의 구조 속에서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먼저 하박국서에 나타난 미쉬파트를 자세히 다루기 전에 미쉬파트

2) Gerhard Lisowsky, *Konkordanz zum Hebräischen Alten Testame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879-882를 보라.

3) 버나드 앤더슨, 「8세기 예언자」(엄현섭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4), 56-68. 원제는 B. W. Anderson, *The Eighth Century Prophet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박중수, “아모스 5:1-17 연구”, 「구약논단」5집 (1998년 10월), 113-124; 이희학, “북왕국 멸망의 사회적 원인들과 예언자 아모스의 심판 선포”, 「구약논단」28집 (2008), 29-48을 보라.

4) Gerhard Lisowsky, 윗글, 879-882를 보라.

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몇 명의 학자들을 살펴보자.

2. 연구사

구약성서에 나타난 히브리 단어 미쉬파트는 오랫동안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고 그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⁵⁾ 특별히 미쉬파트의 기능에 대한 폭넓은 연구는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에서 존슨(B. Johnson)에 의해 시도되었다.⁶⁾ 그는 미쉬파트가 מִשְׁפָּט로부터 파생된 명사이며, 성서 히브리어와 성서 이후의 히브리어 외에 우가릿과 페니키아에서 ‘정부’나 ‘권위’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았다. 그는 구약성서에 나타난 미쉬파트를 6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로, 미쉬파트는 제비뽑기와 관련된다. 제비뽑기의 결과가 미쉬파트라 불리며(잠 16:33), 미쉬파트를 신탁과 연결하는 사사기 4장 5절의 예를 통해 미쉬파트는 결정(decision), 대답(answer), 의견(opinion)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로, 미쉬파트는 사법제도(jurisprudence)와 관련이 있다. 즉 미쉬파트는 종종 재판(justice), 법적소송(legal case), 평결(verdict), 심판(judgment)과 같은 전체적인 사법적 절차를 상징한다. 셋째로, 미쉬파트는 권리(right)의 의미로 사용된다. 즉 법적 권리(legal right)나 정의(righteousness)의 의미로 사용된다. 넷째로, 미쉬파트는 율법(law)의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에서는 대개 복수형태로 사용되는데 율법 전체에 대한 요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명령들을 의미한다. 다섯째로, 미쉬파트는 관습(custom)의 의미로 사용된다. 여섯째로, 미쉬파트는 절제(moderation)의 의미로 사용된다.

5) ‘미쉬파트’에 관한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 목록을 위해서 B. Johnson, “מִשְׁפָּט, mišpāt”,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IX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86을 보라.

6) 윗글, 86-98을 보라.

엔스(Peter Enns)는 존슨보다는 간략하게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에서 미쉬파트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4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⁷⁾ 첫째로 미쉬파트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사법적인 함축을 지닌다. 둘째로 미쉬파트는 율법을 의미한다. 특별히 출애굽기 21-23장에 의하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들이 ‘하미쉬파트’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미쉬파트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위한 규칙과 규범이 된다. 셋째로 미쉬파트는 신의 명령들을 언급한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37절에 의하면 명령들 자체가 단순히 지켜져야 할 예외법절이 아니라 미쉬파트로서 언급되기 때문이다. 넷째로 미쉬파트는 가장 빈번하게 예언 문학에 나타난다. 예언문학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 아래서 이스라엘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정의의 위반이며, 그 결과로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 심판은 단순히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임할 뿐 아니라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도 임한다.

바인펠트(Moshe Weinfeld)는 정의와 공의(צדקה וצדק; justice and righteousness)의 표현과 의미를 고대 근동의 문헌과 비교하면서 연구하였다.⁸⁾ 먼저 그는 정의와 공의의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정의(justice)와 공의(righteousness)는 하나님에 의해 왕에게 주어진 성격모사(character trait)를 의미한다(시 72:1-2).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왕에게 허락하는데, 그것은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을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정의와 공의는 숭고한 하나님의 이상으로 고려되어진다(시 33:5).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7) Peter Enns, “צדק”, Willem A. Vangeneren(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2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1142-1144.

8) Moshe Weinfeld, “‘Justice and Righteousness’-צדקה וצדק-The Expression and Its Meaning”, Henning Graf Reventlow and Yair Hoffman(eds), *Justice and Righteousness: Biblical Themes and their Influence* (JSOTSS 137; Sheffield: JSOT Press, 1992), 228-246을 보라.

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해진다. 셋째, 정의와 공의는 자비(mercy)와 인자(kindness)와 같은 사회이념(social ideal)으로 고려되어진다(사 16:5; 9:6).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인펠트는 정의와 공의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본다.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가난한 자들과 꺾박을 받는 자들을 위한 행동과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단어 미쉬파트 특히 미쉬파트와 꺾대키는 정의의 적당한 실행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평등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것은 인애와 자비와 연결되어 있다. 특별히 이러한 이해는 예언적 권고에 명백히 드러난다. 바인펠트는 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구문이 사회정의와 평등의 실행을 언급하는 유일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는 ‘사건을 재판하다’(שפט משפט ןב ןב) 또는 ‘공의로 재판하다’(שפט בצדק)와 같은 구문 또한 사회정의의 개념을 언급한다고 본다. 정의와 공의는 배심원에게 속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훨씬 더 사회 정치적 지도자들과 관련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쉬파트에 관한 연구는 구약성서 전체에서 미쉬파트의 특징과 기능을 살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 한국에서 주전 8세기 예언자의 미쉬파트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이동수는 “미가서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에 대해 다루었고,⁹⁾ 오택현은 “이사야 1-12장에 나타난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다.¹⁰⁾ 그러나 특별히 하박국서를 중심으로 미쉬파트를 전체적인 구조와 관련하여 깊게 다룬 논문은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하박국서 주석서들이 미쉬파트가 나타나는 단락이나 구절에서 그것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시도하기는 하였지만 미쉬파트를 하박국서

9) 자세한 논의를 위해 이동수, “정의에 대한 책임(미가 3:1-4)”, 『장신논단』 10집 (1994), 272-300; 이동수, “미가서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장신논단』 15집 (1999), 56-73를 보라.

10) 자세한 논의를 위해 오택현, “이사야 1-12장에 나타난 정의”, 『신학과 목회』 35집 (2011), 1-25를 보라.

의 전체적인 구조와 문맥에서 서로 비교하고 설명하지는 않았다.¹¹⁾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하박국서를 중심으로 미쉬파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3. 하박국서에 나타난 미쉬파트

하박국서 안에 하박국에 관한 어떠한 개인적인 정보도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학자들은 하박국 1장 6절의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는 표현을 근거로 하박국이 아마도 신바벨론 제국의 나보폴라살(주전 626-605년)이 앗수르를 공격하던 시기와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2세가 이집트의 느고를 격퇴시킨 갈그미스 전투(주전 605년)가 있었던 시기 사이에 활동한 것으로 본다.¹²⁾ 또한 하박국 1장 4절과 13절에 나타나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의인”은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말하는 것이며, “악인”은 이집트에 의해 왕이 된 여호야קים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하박국의 활동 연대를 여호야קים의 시대(주전 609-597년)로 본다.¹³⁾

1) 하박국서의 구조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하박국서를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었다.¹⁴⁾

-
- 11) 최근에 ‘미쉬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하박국서를 비롯하여 소예언서 안에서 ‘미쉬파트’를 고찰한 연구서로는 김창대의 「한권으로 꿰뚫는 소예언서」(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3)가 있다.
 - 12) 우택주, 「새로운 예언서 개론」(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241-242; 박준서, 「이스라엘에 여호와와 날을 준비하라」(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53-255; 유윤중, 「마음으로 읽는 소예언서」(용인: 킹덤북스, 2011), 188-189를 보라.
 - 13) 박준서, 윗글, 252-253; 우택주, 윗글, 222-223. 이 시대의 상황을 위해 예레미야 22장 15-17절을 보라.
 - 14) Brevard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London: SCM Press Ltd., 1979), 448; James D. Newsome, Jr., *The Hebrew Prophets* (Atlanta: John Knox Press, 1984),

I. 하박국의 질문과 야웨의 답변(1:1-2:5)

II. 다섯 가지의 저주신탁(2:6-20)

III. 하박국의 기도(3:1-19)

스위니(M. A. Sweeney)는 이 세 개의 단락이 상호 관련성이 없이 임의적으로 묶인 것처럼 보이며, 특히 이러한 구조는 하박국 1장 1절과 3장 1절에 나타나는 두 개의 표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¹⁵⁾ 일반적으로 표제는 단락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구조분석은 바로 이 표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¹⁶⁾ 그리하여 이러한 것들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구조 분석이 시도되었다.¹⁷⁾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제를 중심으로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I. 하박국의 선포(1:1-2:20)

A. 표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1:1)

B. 하박국의 탄원과 야웨의 답변(1:2-2:20)

1. 첫 번째 하박국의 탄원과 야웨의 답변(1:2-11)

a. 하박국의 탄원(1:2-4)

b. 야웨의 답변(1:5-11)

94-95; Kenneth L. Barker & Waylon Bailey, *Micah, Nahum, Habakkuk, Zephaniah* (NAC 20B;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9), 287-378; 송병현, “하박국서의 구조와 신학적 주제”, 『오나, 하박국: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2), 131-144; 장일선, 『히브리 예언서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320을 보라.

15) M. A. Sweeney, “Habakkuk, Book of”, D. N. Freedman et al.(eds), *Anchor Bible Dictionary* vol. 3 (New York: Doubleday, 1992), 3. 송병현, 위글, 133을 보라.

16) 소예언서들에 나타난 표제를 위해 John D. W. Watts, “Superscriptions and Incipits in the Book of the Twelve”, J. D. Nogalski & M. A. Sweeney(eds), *Reading and Hearing: The Book of the Twelve*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110-124를 보라.

17) Marvin A. Sweeney, *The Prophe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198; Marvin A. Sweeney, *The Twelve Prophets vol. 2: Micah, Nahum, Habakkuk, Zephaniah, Haggai, Zechariah, Malachi*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0), 457-458을 보라.

2. 두 번째 하박국의 탄원과 야웨의 답변(1:12-2:20)

a. 하박국의 탄원(1:12-17)

b. 야웨의 답변(2:1-20)

II. 하박국의 기도(3:1-19)

A. 표제: “시기오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3:1)

B. 하박국의 기도(3:2-19)

1. 야웨의 현현과 자연현상(3:2-7)

2. 야웨의 전쟁에서의 승리(3:8-15)

3. 예언자의 응답(3:16-19)

위에서 보는 것처럼 하박국서의 첫 번째 단락(합 1:1-2:20)은 ‘선지자 하박국이 본 신탁’(הַמְשָׁא אֲשֶׁר הָיָה בְּבִקּוּק הַנְּבִיא)이라는 표제로 시작한다.¹⁸⁾ 이 표제에는 하박국이 선지자라는 사실 외에 어떠한 정보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표제 이후에 하박국과 야웨의 대화가 연이어 두 번 나타난다(합 1:2-11; 1:12-2:20).

먼저 하박국과 야웨의 첫 번째 대화(합 1:2-11)를 살펴보자.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합 1:2-4)은 유다사회의 다양한 문제로 인한 하박국의 탄원을 다룬다. 유다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하박국은 한탄하며 특별히 אָדָם-אִנָּה(아드-아나/언제까지, 2절)와 לָמָּה(람마/어찌하여, 3절)라는 수사적 표현을 사용하여 야웨께 질문을 던진다. 언제까지 악인의 악행을 버려두실 것이며,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데도 내버려 두시냐고 탄원한다. 곧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야웨의 답변(합 1:5-11)이 이어진다. 그런데 야웨의 답변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 하박국의 ‘언제까지’와 ‘어찌하여’라는 질문에 대해 야웨는 정확

18) 표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노세영, 「나훔, 하박국, 스바냐」(성서주석 29;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8), 185-187을 보라.

한 답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하박국을 더 혼란에 빠뜨린다. 야웨는 사납고 성급하며, 교만하고 폭력적인 갈대아인을 세워 유다의 악을 심판해야겠다고 대답한다. 한마디로 더 악한 도구를 사용하여 악을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야웨의 답변은 결국 하박국의 두 번째 탄원을 유도한다.

하박국의 두 번째 탄원(합 1:12-17)은 첫 번째 탄원과 유사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더 포악하고 교만한 갈대아인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한탄하며 하박국은 두 번의 의문 접두사 הֲיִשְׁתַּחֲוֶה (12절; $\text{לֵעָלְמָא דְּבָרֵינוּ}$ 17절)와 הֲיִשְׁתַּחֲוֶה (람마/어찌하여, 13절)라는 수사적 표현을 사용하여 야웨께 질문을 던진다. 먼저 의문 접두사를 포함하고 있는 ‘당신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text{הֲיִשְׁתַּחֲוֶה מִיָּמֵינוּ אֲנִי הֲיִשְׁתַּחֲוֶה מִיָּמֵינוּ}$)라는 수사적 질문을 통해 과거로부터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야웨께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갈대아인을 세울 수 있냐고 묻는다.¹⁹⁾ 그리고 ‘어찌하여’라는 수사적 질문을 통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히 있냐고 묻고, 마지막 17절에서 다시 한 번 의문 접두사를 통해 갈대아인들이 무자비하게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הֲיִשְׁתַּחֲוֶה)라고 묻는다.

이러한 하박국의 탄원에 야웨의 두 번째 답변(합 2:1-20)이 이어지는데 야웨는 아주 명확하고도 세부적으로 하박국에게 답변을 주고 있다. 앞에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지 않은 야웨께서 이제 여기에서 그의 두 번의 질문에 한꺼번에 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먼저 하박국 2장 1-4절에서 야웨께서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 하박국은 ‘언제까지’ 악행을 참으시며,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것을 보고 계시겠냐는 질문을 던졌다(합 1:2-4). 이것에 대한 답으로 야웨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대답한다(합 2:3). 그러면서 야웨는 이 말씀을 의심하고 교만함을 보이거나 정직

19) 윗글, 211-212를 보라.

하지 못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오히려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의인이 되라고 말한다(합 2:4).²⁰⁾

이어서 야웨의 두 번째 대답이 길게 이어진다(합 2:5-20). 이것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즉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합 1:13)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특별히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어떠한 모양으로 벌할지를 다섯 개의 ‘호이’(יִי) 신탁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신탁은 3중 구조의 형태를 드러낸다. 즉 ‘호이 감탄사’ + ‘사악한 자의 행위 묘사’ + ‘악인에 임할 심판’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²¹⁾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다섯 번의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한다.

이처럼 하박국 1-2장은 하박국의 질문과 야웨의 답변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다사회의 악과 바벨론의 악을 강조하며 야웨의 의로움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개를 위해 의문부사나 의문접두사와 같은 수사적 질문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이라는 구조로 하박국 당시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다.

두 번째 단락(합 3:1-19)은 “시기오낫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 표제와 함께 시작한다(합 3:1).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하박국 1-2장과 3장의 연결성을 무시하였다.²²⁾ 그러나 3장은 확실히 앞의 1-2장과 연결된다. 왜냐하면 하박국의 탄원(1장)에 하나님께서

20) 이형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주해와 적용”, 『요나, 하박국: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2), 200을 보라.

21) 임동원, “하박국서의 문학적 분석: 구조와 주제적인 단어(Leitwort)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4집 (2002년), 58.

22) 대략 4가지의 이유를 볼 수 있다. (1) 하박국 3장은 나중에 저작되어 삽입된 것이다. (2) 쿨란에서 발견된 하박국서 주석에 하박국 3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시리아어본과 콥틱어본 등과 같은 텍스트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헬라어본 카르베리니 사본이 하박국 3장을 독립적인 문헌으로 다루고 있다. 4) 하박국 3장 1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이 다시 언급된다. 송병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1), 411을 보라.

는 충분한 답변을 주셨고(2장) 이에 대해 3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박국의 기도는 그의 탄원에 하나님께서 만족할만한 답을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노래인 것이다.²³⁾ 게다가 하박국 1-2장과 3장의 연결고리는 3장 2절과 16절에 나타난다. 3장 2절과 16절의 1인칭 서술구조는 하박국이 2장의 악인을 심판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놀랐으며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런 점에서 3장과 1-2장 사이의 연속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²⁴⁾ 따라서 3장 2절과 16절은 앞의 신탁과 하박국의 기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3장 3-15절의 하박국의 기도를 감싸면서, 뒤에 이어지는 3장 17-19절의 하박국의 감사의 기도와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하박국의 기도는 두 개의 소단락(합 3:1-16; 3:17-19)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첫 번째 소단락(합 3:2-16)에서 하박국은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16절) 현재 고통 받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상술한다. 먼저 3-7절은 3인칭으로 기술되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현현을 언급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은 과거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는데,²⁵⁾ 이러한 현현 사건을 통해 하박국은 앞으로 악인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음을 노래한다. 이것을 위해 출애굽 이미지가 사용된다. 8-15절은 2인칭으로 기술되었는데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묘사되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노래한다. 이것을 위해 가나안 신화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활용되어 심판하시는 야웨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²⁶⁾ 여기에서 하박국은 유다를 침략했던 바벨론과 세상의 온 민족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사건을 확신 있게 기다리며 이

23) 윗글, 413.

24) Elizabeth Achtemeier, *Nahum-Malachi* (Atlanta: John Knox Press, 1986), 53.

25) 노세영, 윗글, 268. 사사기 5장, 출애굽 15장, 시편 68편, 95편, 107편, 136편에서 이러한 예를 볼 수 있다.

26) 유윤중, 윗글, 198.

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²⁷⁾

두 번째 소단락(합 3:17-19)에서 하박국은 야웨께 무한한 신뢰를 보인다. 바벨론 사람들의 침입과 파괴로 인해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야웨께서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하박국은 찬양하고 있다. 결국 이 고백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4)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다.²⁸⁾

2) 하박국서에서 미쉬파트의 특징과 기능

이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미쉬파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오직 미쉬파트와 관련된 단락만을 살필 것이다. 하박국서에 미쉬파트는 네 번 나타난다(합 1:4a, 4b, 7, 12). 하박국의 첫 번째 탄원(합 1:2-4)에 두 번, 그의 탄원에 대한 야웨의 답변(합 1:5-11)에 한 번 나타난다. 그리고 하박국의 두 번째 탄원(합 1:12-17)에 한 번 나타난다.

(1) 하박국 1장 2-4절

미쉬파트가 두 번 나타나는 하박국의 첫 번째 탄원(합 1:2-4)은 ‘언제까지입니까?’(מָה אֶפְסָר אֲדָרָא-אֲנִי) 아드-아나)로 시작하는 개인 탄원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²⁹⁾ 2절은 두 개의 단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위들은 각각 1인칭 동사 + אֲנִי + 2인칭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형태로 하박국은 야웨께 두 번 탄원한다. “내가 구원을 요청했어도 당신은 듣지 않았습시다.” “내가 폭력으로 인해 부르짖어도 당신은 구원하지 않았습시다.”

27) Elizabeth Achtemeier, *룻글*, 53-54.

28) *룻글*, 58-59.

29) 2-3절은 개인탄원시의 전형인 3+2 형태의 운율(meter)을 가지고 있으며, 4절은 3+3 형태의 운율을 가진다. 랄프 스미스, 「미가-말라기」(주석번역위원회 번역), (서울: 임마누엘, 1991), 144. 원저는 Ralph L. Smith, *Micah-Malachi* (WBC 32;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4); Kenneth L. Barker & Waylon Bailey, *룻글*, 294.

다.” 그리고 3절에서 허박국은 여섯 개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유다 공동체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기술한다. “어찌하여 당신께서 나로 하여금 죄(אָיַן 아벤)를 보게 하시며, 당신께서 패역(עָמַל 아말)을 보게 하십니까?” “겁탈(שָׁד 쇼드)과 강포(הַמָּסָה 하마스)와 변론(רִיב 리브)과 분쟁(מָדוֹן 마돈)이 일어났나이다.” 겁탈, 강포, 변론, 분쟁과 같은 명사들은 여호야김의 통치 시기 동안 유다사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단어들이다.³⁰⁾ 4절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말한다.

עַל-כֵּן חֲפוּנֵי תוֹרָה וְלֹא-יִצְאָ לְנֹצַח מִשְׁפָּט
 כִּי רָשָׁע מִכְתִּיר אֶת-הַצְּדִיק
 עַל-כֵּן יִצְאָ מִשְׁפָּט מֵעַקֵּל

그리하여 율법이 해이하고 미쉬파트(정의)가 영원히 시행되지 못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미쉬파트(정의)가 급게 행해졌다.

여기에서 특별히 두 번의 עַל-כֵּן(알=캔/그러므로)이 나타난다. 첫 번째 עַל-כֵּן은 3절에서 지적된 죄,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과 같은 다양한 문제로 인해 토라가 해이해지고 미쉬파트(정의)가 영원히 시행되지 못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고(4a절),³¹⁾ 두 번째 עַל-כֵּן은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미쉬파트(정의)가 급게 행해졌음(4b절)을 강조하기 위

30) Kenneth L. Barker & Waylon Bailey, *윳글*, 295; Theodore Hiebert, “The Book of Habakkuk”, Leander E. Keck et al.(ed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VII (Nashville: Abingdon Press, 2000), 631; 송병현, *윳글*(2011), 368–369.

31) 로버츠(J. J. M. Roberts)는 여기에 나타나는 토라를 제사장 교훈, 예언자의 신탁, 또는 법정 의 결정으로 이해하지만, 허박국이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후에 활동했기에 토라를 성전에서 발견된 유명한 토라 두루마리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J. J. M. Roberts,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90.

해 사용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박국은 유다사회의 문제가 바로 미쉬파트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4절에 나타나는 מִשְׁפָּט(라네짜/영원히)은 유다사회에서 미쉬파트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³²⁾ 이런 점에서 여기에 사용된 두 번의 미쉬파트는 하박국 당시의 유다 공동체의 혼란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다.³³⁾ 즉 하박국 당시의 사회의 혼란상을 가장 적절하게 함축하는 단어로 미쉬파트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토라(율법)와 미쉬파트(정의)가 나란히 사용되어 유다사회의 혼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박국은 유다사회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토라가 해이하고 미쉬파트가 영원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토라와 미쉬파트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구약성서에서 22번이다.³⁴⁾ 이 둘의 관계는 세 가지 형태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토라는 미쉬파트보다 큰 개념이며, 미쉬파트가 토라의 한 부분으로 언급되고 있는 경우이다(신 4:8; 왕상 2:3; 스 7:10; 느 9:29; 10:29[MT 10:30]; 말 4:4[MT 3:22]). 여기에서 미쉬파트는 호크(חֶקֶץ)나 미츠바(מִצְוָה)나 차디크(צַדִּיק)나 에두트(עֲדוּת)와 같은 단어들과 함께 토라의 일부분으로 묘사된다. 둘째로 토라와 미쉬파트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일부로 묘사되는 경우이다(레 26:46; 왕하 17:34, 37; 겔 44:24; 느 9:13; 대하 19:10; 33:8). 여기에서 토라와 미쉬파트는 호크와 미츠바와 같은 단어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각 부분

32) 김희보, 「구약 하박국, 스바냐 주해」(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7), 32.

33) 악트마이어(Elizabeth Achtemeier, 윗글, 34)와 베일리(Waylon Bailey, 윗글, 295)는 이 단락(합 1:2-4)을 이해하는 핵심 단어가 '미쉬파트'라고 주장한다.

34) 22개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레 26:46; 민 15:16; 신 4:8; 17:11; 33:10; 왕상 2:3; 왕하 17:34, 37; 사 42:4; 52:4; 겔 44:24; 합 1:4; 말 4:4[MT 3:22]; 시 89:3; 스 7:10; 느 8:18; 9:13, 29; 10:29[MT 10:30]; 대하 19:10; 30:16; 33:8. 이것과 유사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수 24:25-26; 시 37:30-31; 119:61-62, 163-164, 174-175; 잠 28:4-5.

을 담당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셋째로, 미쉬파트와 토라는 동등한 개념으로 나타난다(민 15:16; 신 17:11; 33:10; 사 42:4; 52:4; 시 89:31; 느 8:18; 대하 30:16; 참고, 시 37:30-31; 119:61-62, 163-164; 잠 28:4-5). 여기에서 이 둘 사이에 의미는 동일하며, 어떤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이 두 단어가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위에 언급된 하박국 1장 4절의 “율법(토라)이 해이하고 정의(미쉬파트)가 영원히 시행되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위의 세 번째 경우에 속한다. 즉 토라가 미쉬파트와 함께 사용되어 유다사회의 혼란이 상당히 심각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첫 번째 경우에서 보듯이 미쉬파트는 많은 경우에 토라라는 큰 개념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미쉬파트가 토라와 동등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유다 사회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스위니는 토라가 일반적으로 창조세계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교훈을 언급하는데, 여기에서 정의로 번역된 미쉬파트 역시 정의의 기본적 원리들을 구체화하는 율법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렘 8:7; 사 58:2).³⁵⁾ 이런 점에서 여기에 사용된 미쉬파트는 토라와 연결되어 유다의 혼란한 사회상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⁶⁾

(2) 하박국 1장 5-11절

또 하나의 미쉬파트가 하박국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나타난다(합 1:5-11). 미쉬파트(정의)가 행해지지 않고 미쉬파트(정의)가 급게 행해지고 있는 유다사회에 대한 하박국의 고발에 대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한다(6절). 한마디로 유다사회의 미쉬파트(정의)에 대한 문제가 결국 갈대아 사람이 유다

35) Marvin A. Sweeney, *윳글*(2000), 464.

36) 배희숙, “하박국 1-2장의 형성사 고찰”, 『구약논단』46집 (2012), 105를 보라.

공동체에 개입하는 빌미가 되었던 것이다. 유다사회의 죄악을 미쉬파트라는 단어로 정리하고, 악인의 악행을 미쉬파트라는 단어로 정리한 하박국은 이제 미쉬파트의 부재로 갈대아 사람의 침략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답변을 듣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쉬파트의 행함 여부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이 단락에는 유다를 심판할 갈대아 사람의 외적인 특징과 내적인 특징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외적인 특징으로 이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으로 다른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점령하는 자들이며(6a절), 강력한 힘을 가진 군마와 마병으로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점령할 능력을 가진 자들로 묘사된다(8-10절). 반면에 7절에는 갈대아 사람의 내적인 특징들이 네 개의 단어로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אֵים נֹרָא הוּא

מִמֶּנּוּ מִשְׁפָּט וְשֹׂאתוֹ יָצָא

그는 두렵고 무서우며,

그로부터 그의 미쉬파트(법/질서)와 그의 위엄이 나온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갈대아 사람의 내적인 특징을 위해 사용된 단어들은 **אֵים**(아름/두려운), **נֹרָא**(노라/무서운), **מִשְׁפָּט**(미쉬파트/법), **שֹׂאת**(세에트/위엄) 등이다. 여기에서 주어는 **הוּא**(후/그는)이다. 아마도 갈대아 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³⁷⁾ 그리하여 7절은 ‘갈대아 왕은 두렵고 무서

37) 노세영, *윳글*, 202, 맥코미스키(Thomas Edward McComiskey)는 단수 **הוּא**가 6절의 **הַגּוֹי**(하 고이/민족)를 의미한다고 본다. Thomas Edward McComiskey, *The Minor Prophets: Obadiah, Jonah, Micah, Nahum, and Habakkuk* vol. 2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2000), 848.

우며, 그로부터 그의 미쉬파트와 그의 위엄이 나온다.’고 해석할 수 있다.³⁸⁾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앞 단락(합 1:2-4)에서 정의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미쉬파트가 갈대아 왕의 성품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갈대아 왕으로부터 미쉬파트가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유다가 점령되어 야웨의 미쉬파트가 아니라 갈대아 왕의 미쉬파트에 의해 유다가 통치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³⁹⁾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미쉬파트는 ‘갈대아 왕의 법’을 의미하는 동시에 ‘바벨론에 의해 부과된 새로운 질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 새로운 질서는 하박국 1장 4절에 묘사된 ‘왜곡된 질서’와 평행을 이루고 있다.⁴⁰⁾ 즉 하박국은 같은 단어 미쉬파트를 사용해 유다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앞으로 도래한 새로운 질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미쉬파트는 유다사회에 공평하고 유리한 미쉬파트(법/질서)가 아니라 갈대아 왕의 독재적인 미쉬파트(법/질서)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미쉬파트를 버린 유다사회는 갈대아 왕의 미쉬파트에 의해 통치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단락(합 1:5-11)에 나타난 한 번의 미쉬파트와 이전 단락(합 1:2-4)에 나타난 두 번의 미쉬파트는 유다사회의 최악된 상황을 함축적이며 효과적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앞으로 유다사회에 닥칠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효과적으로 묘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3) 하박국 1장 12-17절

마지막으로 한 번의 미쉬파트가 하박국의 두 번째 탄원(합 1:12-17)에 나타난다. 이 단락에서 하박국은 온전하신 야웨께서 어찌하여 사악한 갈대아인을 세워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는가를 묻는다. 여기에서 하나님

38) 「개역개정」은 1장 7절을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라고 번역하고 있다. 미쉬파트가 ‘당당함’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앞의 단락(합 1:2-4)과 연결하여 볼 때 적당치 않다.

39) 노세영, *윳글*, 203; Elizabeth Achtemeier, *윳글*, 38을 보라.

40) Marvin A. Sweeney, *윳글*(2000), 466.

은 눈이 정결하여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는 분으로 묘사되고(13절), 갈대아인은 마치 낚시와 그물과 투망으로 바다의 고기를 잡듯이 많은 열국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그것을 기념하여 자신들의 신에게 분향하는 자들로 묘사된다(14-17절). 하박국은 다시 한 번 사악한 이방인을 통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는가를 탄원시의 형태를 빌어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탄원을 위해 미쉬파트가 다시 한 번 사용되고 있다(12b절).

יְהוָה לְמִשְׁפָּט שִׁמְחוּ

וְצֹרֵר לְהוֹכִיחַ יִסְדֶּרְתִּי

야웨시여, 당신은 미쉬파트(심판)하기 위해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당신은 책망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위에서 보듯이 하박국은 야웨께서 유다를 미쉬파트하기 위해 갈대아인을 두고, 유다를 책망하기 위해 갈대아인을 세웠다고 말한다(12b절). 여기에서 미쉬파트는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의 미쉬파트(정의)를 행하지 않은 유다사회를 하나님께서 심판(미쉬파트)하시기 위해 갈대아인을 일으키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 세 번 나타난 미쉬파트와 연결하여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이 단락에 사용된 미쉬파트는 ‘심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그것들을 종합하는 역할을 한다. 즉 유다사회가 하나님의 미쉬파트(정의)를 시행하지 않자 하나님은 갈대아인을 일으켜 유다사회를 갈대아인의 미쉬파트(법)에 의해 통치를 받게 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미쉬파트(심판)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4) 하박국서 전체 구조 속에서 미쉬파트의 기능

위의 구조분석에서 언급했듯이 하박국서는 두 개의 탄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하박국 1장 2-11절에서 첫 번째 하박국의 탄원과 야웨의 답변이 언급되고, 하박국 1장 12절-2장 20절에 하박국의 두 번째 탄원과 야웨의 답변이 언급되고,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의 기도와 감사가 언급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박국의 두 번의 탄원의 내용이 미쉬파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하박국은 유다사회의 미쉬파트(정의)의 문제로 야웨께 첫 번째 탄원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야웨께서 갈대아인을 세워 갈대아인의 미쉬파트(법)로 유다사회를 통치하도록 하고, 결국 갈대아인을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사회를 미쉬파트(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답변에 하박국은 두 번째 탄원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하박국서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는 미쉬파트와 관련되어 있으며, 미쉬파트가 핵심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박국서에는 악인과 의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된다(합 1:4, 13; 2:4; 3:13). 특별히 하박국은 야웨께 탄원을 두 번하고 있는데 그 때마다 악인과 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첫 번째 탄원에서 하박국은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다”고 말한다(합 1:4). 그리고 두 번째 탄원에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할 수 있나”(합 1:13)고 묻는다. 한마디로 하박국은 탄원할 때마다 악인과 의인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탄원에 야웨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다(합 2:4).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말한다(합 3:13). 이런 점에서 하박국서는 악인과 의인에 관심을 보이며 악인과 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박국의 메시지를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미쉬파트(정의/법)의 실행여부이다. 하박국 1장 4절

에서 허박국은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급게 행하여졌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정의가 급게 행하여진 이유는 악인들 때문이다. 한마디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미쉬파트를 지키지 않고 죄를 지은 자들이다. 학자들은 허박국의 활동 연대를 고려하여 악인을 여호야김과 그의 추종자들로 본다(왕하 23:36-24:5).⁴¹⁾ 또한 허박국 1장 13절에서 허박국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앞의 단락(합 1:5-11)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의 악인은 바로 갈대아인이다. 이들은 야웨에 의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자들로 야웨의 미쉬파트(법)가 아닌 그들 자신의 미쉬파트(법)로 유다사회를 지배하고 파괴했던 자들이다(합 1:7). 그리고 허박국 2장 4절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의인은 누구인가? 허박국 1장에 의하면 야웨의 미쉬파트(정의)를 시행하고 야웨의 미쉬파트를 급게 하지 않았으며 야웨의 토라(법)를 따라 산 자들이다. 게다가 이들은 허박국 3장 13절에서는 ‘야웨의 백성’과 ‘야웨의 기름부음 받은 자’와 동일시된다. 이러한 점에 미쉬파트는 허박국서의 주요 개념인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미쉬파트를 행한 자는 야웨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됨을 암시한다.

4. 결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쉬파트라는 단어는 허박국서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허박국의 첫 번째 탄원에서는 미쉬파트가 ‘정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야웨의 첫 번째 답변에서는 미쉬파트가 ‘갈대아인의 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그리고 허박국의 두 번째 탄원에서는 미쉬파트가 ‘심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로

41) Elizabeth Achtemeier, *룻*, 34. 다른 연대를 위해 배희숙, *룻*, 113을 보라.

해석된 미쉬파트는 동일한 단어이지만 각각의 단락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하박국서의 각 단락의 내용을 주도하는 핵심단어로서 역할을 했으며, 나아가 하박국서 전체의 흐름을 점층적(죄-이방인의 개입-심판)이며 극적으로 묘사하는데 유용한 단어로 사용되었다. 게다가 미쉬파트는 하박국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악인과 의인의 개념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며(합 1:4, 13; 2:4), 그리고 ‘야웨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명령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합 3:13). 이러한 점에서 하박국서는 다른 어떤 예언서보다 미쉬파트를 강조했으며, 히브리어 미쉬파트를 예언자 하박국의 메시지를 위해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한 예언서라고 할 수 있다.

5. 참고문헌

- 김창대, 「한권으로 꿰뚫는 소예언서」(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3).
- 김희보, 「구약 하박국, 스바냐 주해」(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7).
- 노세영, 「나훔, 하박국, 스바냐」(성서주석 29;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랄프 스미스, 「미가-말라기」(주석번역위원회 번역), (서울: 임마누엘, 1991). 원제는 Smith, Ralph L., *Micah-Malachi* (WBC 32;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4).
- 박종수, “아모스 5:1-17 연구”, 「구약논단」 5집 (1998년 10월), 113-124.
- 박준서, 「이스라엘아! 여호와와 날을 준비하라」(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버나드 앤더슨, 「8세기 예언자」(엄현섭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4), 56-68. 원제는 Anderson, B. W., *The Eighth Century Prophet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 배희숙, “하박국 1-2장의 형성사 고찰”, 「구약논단」 46집 (2012), 96-122.
- 송병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1).
- 송병현, “하박국서의 구조와 신학적 주제”, 「요나, 하박국: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2), 131-144.
- 오택현, “이사야 1-12장에 나타난 정의”, 「신학과 목회」 35집 (2011), 1-25.
- 우택주, 「새로운 예언서 개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 유윤중, 「마음으로 읽는 소예언서」 (용인: 킹덤북스, 2011).
- 이동수, “정의에 대한 책임(미가 3:1-4)”, 「장신논단」 10집 (1994), 272-300.
- 이동수, “미가서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장신논단」 15집 (1999), 56-73.
- 이형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주해와 적용”, 「요나, 하박국: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2), 195-207.
- 이희학, “북왕국 멸망의 사회적 원인들과 예언자 아모스의 심판 선포”, 「구약논단」 28집 (2008), 29-48.
- 임동원, “하박국서의 문학적인 분석: 구조와 주제적인 단어(Leitwort)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4집 (2002년), 53-73.
- 장일선, 「히브리 예언서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Achtemeier, Elizabeth, *Nahum-Malachi* (Atlanta: John Knox Press, 1986).
- Barker, Kenneth L., & Waylon Bailey, *Micah, Nahum, Habakkuk, Zephaniah* (NAC 20B;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9).
- Childs, Brevard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London: SCM Press Ltd., 1979).

- Enns, Peter, “חֻזְקוֹ”, Willem A. Vangeneren(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2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1142-1144.
- Hiebert, Theodore, “The Book of Habakkuk”, Leander E. Keck et al.(ed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VII (Nashville: Abingdon Press, 2000), 623-655.
- Johnson, B., “חֻזְקוֹ, mišpāt”,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IX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86-98.
- Lisowsky, Gerhard, *Konkordanz zum Hebräischen Alten Testame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 McComiskey, Thomas Edward, *The Minor Prophets: Obadiah, Jonah, Micah, Nahum, and Habakkuk* vol. 2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2000).
- Newsome, James D. Jr., *The Hebrew Prophets* (Atlanta: John Knox Press, 1984).
- Roberts, J. J. M.,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 Sweeney, Marvin A., “Habakkuk, Book of”, D. N. Freedman et al.(eds), *Anchor Bible Dictionary* vol. 3 (New York: Doubleday, 1992), 1-6.
- Sweeney, Marvin A., *The Twelve Prophets vol. 2: Micah, Nahum, Habakkuk, Zephaniah, Haggai, Zechariah, Malachi*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0).
- Sweeney, Marvin A., *The Prophe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Watts, John D. W., “Superscriptions and Incipits in the Book of the Twelve”, J. D. Nogalski & M. A. Sweeney(eds), *Reading and Hearing: The Book of the Twelve*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110-124.

Weinfeld, Moshe, “Justice and Righteousness’-משפט וצדקה-The Expression and Its Meaning”, Henning Graf Reventlow and Yair Hoffman(eds), *Justice and Righteousness: Biblical Themes and their Influence* (JSOTSS 137; Sheffield: JSOT Press, 1992), 228-246.

검색어

하박국

미쉬파트

정의

법

심판

A Study of מִשְׁפָּט in the Book of Habakkuk

Rae-Yong Kim,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yupSung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mishpat* used as the key word for both Habakkuk's questions and the Lord's answers in the book of Habakkuk. For this, I will investigate languages and structures of each section including *mishpat* in the book of Habakkuk.

Hebrew word *mishpat* is used as several meanings in the book of Habakkuk. It is used as the meaning of 'justice' in the initial complaint of Habakkuk(1:2-4), as the meaning of 'Chaldeans' order/law' in the Lord's answer(1:5-11), and as a meaning of 'judgement' in the second complaint of Habakkuk(1:12-17). As *mishpat* in the book of Habakkuk is used as different meanings in each section and as a useful word describing each section appropriately, it plays a role as an important word describing Habakkuk's messages gradually and dramatically. In this regard, *mishpat*

serves as a very special word in the book of Habakkuk.

In addition, *mishpat* is used as a standard to distinguish between the wicked and the righteous. Habakkuk 1:4 says, “The wicked surround the righteous.” Here the wicked indicates King Jehoiakim and his followers who have abandoned the righteous order/*mishpat* intended by the Lord for their society. Habakkuk 1:13 says, “The wicked swallow those more righteous than they.” Here the wicked indicates the Chaldeans who are foreigner and more idolatrous and more evil. They are those who controlled and destroyed Judean society not with the Lord's *mishpat* but with their *mishpat*. Meanwhile, the righteous in Habakkuk 2:4 as well as in 1:4 and 1:13 indicate those who follow the Lord's *mishpat* and *torah*. They are identified with ‘the Lord's people’ and ‘the Lord's anointed one’ in Habakkuk 3:13. In this regard, it is likely that the book of Habakkuk emphasizes Hebrew word *mishpat* more than the other books of the Old Testament.

Key words

Habakkuk

Mishpat

Justice

Law

Judgement

- 투고일: 2013년 4월 01일
- 심사일: 2013년 5월 05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5월 15일

www.kci.go.kr